

영-한 문장구역 수행의 어려움 - 학습자의 수행 및 회상 데이터를 결합한 예비조사

홍설영

To cite this article : 홍설영 (2012) 영-한 문장구역 수행의 어려움 - 학습자의 수행 및 회상 데이터를 결합한 예비조사, 통번역학연구, 16:1, 241-269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

영-한 문장구역 수행의 어려움

학습자의 수행 및 회상 데이터를 결합한 예비조사

홍 설 영*

차 례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문장구역의 언어처리와 인지적 부담
 - 2.2. 시각적 언어간섭
3. 연구 방법 및 데이터 분석
 - 3.1. 연구 문제
 - 3.2. 조사집단 및 절차
 - 3.3. 1~4주 실습수업: 문장 단위 교대 연습
 - 3.4. 5주차 실습수업: 연설문 개별 수행
4. 결론 및 향후 과제

<Abstract>

Hong, Sul-young. (2012). Difficulties learners face in performing English-into-Korean sight translation - A pilot study combining students' performance and retrospective data.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16(1), 241-269

Despite its wide use in the everyday work environment of interpreters, sight translation as a form of interpreting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from scholars and educators to this day. Although

* 한국의국어대학교

sight translation shares features with written and oral translation, existing experimental studies have revealed that it is a rather unique act of language transfer in both cognitive and target text error & stylistic terms. The role of sight translation in the curricula is often based on the premise that it is an act similar to interpretation and its practice can thus contribute to enhancing interpreting skills. As reasonable as such a rationale may be, it tends to overlook the importance of educators to train students in sight translation as a type of professional interpreting rather than a supplementary exercise for consecutive/simultaneous interpretation. Because the set of challenges in performing sight translation are complex and unique, it is only natural that a search for sight translation pedagogy should start by looking into difficulties students encounter in their actual performance. The current pilot study analyses student performance data derived from the classroom to identify challenges learners face in English-into-Korean sight translation. This study employs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of data collection to reach a fuller understanding of the difficulties and their causes.

주 제 어 : 문장구역, 학습자 수행 데이터, 인지노력, 간섭, 내성적 저널 작성

Key Words : Sight Translation, Student Performance Data, Cognitive Effort, Interference, Introspective Journal Keeping

1. 서론

문장구역이란 눈앞의 텍스트를 구두로 해석하는 행위로서 통번역 교육 기관 및 실무환경에서 빈번히 활용된다. 시각적인 정보처리와 구두 발화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문장구역은 통역과 번역의 '경계'(Gorszczyńska, 2010: 2) 혹은 '혼성'(Agrifoglio, 2004: 43)이며, 이처럼 통역과 번역의 특성을 모두 아우른다는 점이 통번역 교육에서 문장구역이 지니는 위상에 타당성을 부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문장구역은 통번역 교육 내에서 대개 통번역사 선발 및 적성검사의 도구, 통번역 학습을 위한 사전 연습(pre-exercise) 기법 혹은 선수 과목으로 기능하고 있다. 즉 언어전환의 기본원리 및 인지처리에 있어 통번역과 문장구역이 지니는 공통 분모에

의거해, 문장구역을 통해 통번역에 필요한 자질을 선별하거나 통번역 실력 향상에 직간접적인 시너지 효과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장구역은 이처럼 통번역의 효과적 교수 도구일 뿐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실무 환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통역의 한 형태이다. 삼파이우(Sampaio, 2007: 64)는 화상 회의 등의 통역 실무 환경에서 구어와 문어가 결합된 새롭고 혁신적인 형태의 통역 유형이 등장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장구역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웨버(Weber, 1990: 44)는 국제회의통역사들은 구어를 구어로 전환하는 ‘순수한’ 형태의 통역을 하기보다는 회의자료, 성명서, 선언문 등 사전에 작성된 글로 문장구역을 통해 통역해야 하는 사례가 증대하고 있음을 일찍이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문장구역은 통역사의 해석 능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Pöchhacker, 2004: 186).

문장구역은 법정통역과 의료통역에서 공식 유형화된 통역의 하나로, 미국의 국립 법정통번역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Judiciary Interpreters & Translators, NAJIT)는 순차, 동시통역과 함께 문장구역을 법정 통역의 3대 유형으로 분류한다. 또한 전미의료통역사협의회(National Council on Interpreting in Healthcare, NCIH)는 의료통역사를 위한 공식 업무 지침¹⁾에 각종 의료 문서에 대한 문장구역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문장구역은 이처럼 사전에 결정된 통역의 한 형태일 뿐만 아니라, 통역 현장에서 원고가 통역 직전에 제공되거나 회의의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텍스트를 보면서 통역사가 자의적으로 통역을 해야 하는 경우(신경선, 2009: 498) 혹은 연사 불참 시(한유희, 2007: 29) 등 불시의 상황에 통역사가 수행해야 하는 하나의 통역 기술이다.

상기한 대로 문장구역은 실로 다양한 실무 환경에서 연사의 유무와 무관하게 그 수요가 창출되고 있음에도, 독자적인 통역 유형으로서의 문장구역에 대한 교육 및 학계의 관심은 역부족인 실정이다. 문장구역은 시각 정보와 구두 발화를 결합시킨다는 면에서 통역과 번역의 속성을 모두 함유하지만, 인지처리 및 수행환경적 측면에서 통번역과는 상당 부분 상이하다. 그러므로 통역과 번역의 개별적 숙달은 문장구역 수행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으며, 학습자들은 독해에서 발화로의 즉각적인 모드 전환을 요하는 문장구역 고유의 수행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실무 통역으로서의 문장구역에 대한 학습 및 교육을 논함에 있어 기존의 커리큘럼 및 교수 방식과는 다른 시각, 즉 통번역과의 공통점에 빚댄 관점에서 방향을 선회하여 문장구역 고

유의 특성을 집중적이고도 총체적으로 조명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통역사는 문장구역의 실무적 환경 및 여건에 따라 자신의 수행 전략을 조절해야 한다. 그러므로 문장구역의 방법론 및 교수법을 논하기 위한 선결 과제는 학습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실무 유형 별로 고찰하여 귀납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의미미한 결론을 위해 언어쌍 및 언어 방향에 따른 학습의 여러 면모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영-한 문장구역에서 학습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이들의 수행 및 회상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보다 광범위한 학습자 데이터의 분석에 앞서 시행되는 소규모 예비조사이다. 따라서 결과의 일반화보다는 학습자의 개별적 특성 및 학습에 대한 다면적인 이해를 도출하여 영-한 문장구역 학습의 포괄적 문제 진단을 위한 초석을 놓는데 의의를 둔다.

2. 이론적 배경

2.1. 문장구역의 언어처리와 인지적 부담

문장구역은 시각적으로 입력된 언어를 분석하여 즉시 구두로 산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통역 및 번역과는 상이한 언어처리의 기제를 근간에 둔다. 신경학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입력 신호가 시각 혹은 청각인가의 여부에 따라 이동의 경로를 달리한다(박문호, 2008: 290)²⁾. 보다 구체적으로, 언어의 이해를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좌뇌의 브로카 영역(Broca's Area)에 언어 정보가 도달하기까지 시각 언어는 후두엽의 피질, 청각 언어는 측두엽의 피질에 각각 수용된 후 각회를 거친 후, 발화를 위해 베르니케 영역(Wernicke's Area)이 활성화된다. 이처럼 문장구역이란 브로카 및 베르니케라는 뇌의 언어 중추를 거의 동시에 활성화시킴으로써 인지에 부담을 가하는 독특한 행위로 규정된다(Visintin & Campos, 2009: 613).

상기한 언어처리적 기제는 문장구역 수행여건의 토대가 되는데, 언어의 수용과 사용을 기준으로 아그리포글리오(2004)가 밝힌 문장구역의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문장구역의 언어 수용과 발화 조건(Agrifoglio 2004: 49)]

언어 수용 조건	언어 발화 조건
▪ 입력 형태: 활자 텍스트 ▪ 문장부호가 운율을 대체 ▪ 텍스트 내 정보에 대한 상시적 접근 ▪ 시각적 입력 및 구두 발화 간 주의력 분할 ▪ 메시지의 비순차적(non-sequential) 수용 ▪ 통역사가 독해 속도를 조절함	▪ 발화 인지노력의 조율 ▪ 독해를 하는 중에 발화를 모니터링함 ▪ 신정보에 대한 점진적 접근 (사전 독해를 못할 경우) ▪ 정보에 대한 사전 접근 (사전 독해가 가능할 경우) ▪ 극심한 언어간섭의 위험 ▪ 통역사가 발화 속도를 조절함

활자화된 텍스트, 즉 문어(文語)라는 언어의 입력 형태는 문장구역 고유의 특성이다. 그러므로 본고의 대상이 되는 영-한 문장구역 수행의 맥락에서 영어의 구어(口語)와 문어의 특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영어 문어는 영어 구어에 비해 정보의 밀도가 높고, 구조가 치밀하며, 신정보를 많이 함유한다(Barton, 1994: 85; Nam, 2005: 12 재인용). 이처럼 어휘, 통사 및 내용적 측면에서 구어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문어는 문장구역의 수행에 어려움을 가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구두 발화를 위해 사전에 작성된 텍스트인 연설문의 예에서 보듯, 문장구역에 빈번히 사용되는 ST는 그 종류와 성격에 따라 문어나 구어 어느 한쪽의 특성에만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난이도의 기준으로는 평이한 어휘일지라도 통역사의 문화에 존재치 않는 개념을 담은 단어의 경우 등, 언어적 전환 혹은 해석의 어려움은 ST의 난이도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이 점을 모두 감안한다면, 문장구역의 어려움이 문어에 전적으로 기인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따라서 문장구역 수행의 전반에 관여하는 인지와 통역으로서의 문장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구역자(口譯者)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보다 광범위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질(Gile, 1995: 183)은 인지노력³⁾ 분할모델(Effort Model)을 통하여 통역의 유형 별로 요구되는 인지 능력을 공식화하였다. 그에 의하면 통역이란 여러 과제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인지적 노력을 요하는 과제가 균형 있게 분배되지 않을 경우 인지적 과부하로 인하여 한 과제가 다른 과제에 방해를 가하며, 결과적으로 통역의 수행에 문제가 발생한다. 인지노력 분할모델에 따르면 문장구역은 '독해'와 '발화'라는 두 가지 인지노력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인지노력 분할모델의

여타 통역 유형에 관한 공식에 비해 문장구역의 구성 항목이 상대적으로 간략하다는 이유로, 문장구역을 순차 혹은 동시통역보다는 단순한 작업으로 오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독해와 발화는 문장구역 수행의 양대 축이지만, 여타 통역 유형의 공식에 포함된 기억(memory)과 조율(coordination)⁴⁾이 문장구역에서 배제될 만큼 둘의 관여가 결코 적다고는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독해가 텍스트 내용에 대한 기억을 필요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며, 기억과 독해 전략의 상관관계를 고찰하는 심리학의 오랜 연구 궤적 또한 이를 방증한다. 뿐만 아니라 문장구역 수행 시, 통역사는 독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읽는 내용에 대한 발화를 계획하는 중에 작업기억(working memory)과 스키마(schema)⁵⁾를 활성화시키게 된다(한윤희, 2007: 8-11). 문장구역에 관한 실험연구에서도 기억의 작용이 언급되는데, 아그리포글리오(2004: 61)는 실험에서 문장구역자가 문장 서두의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단기 기억을 동원하며, TL 문장의 자연스러운 호응을 이루는 차원에서 자신이 처음 발화한 문장의 형태에 대해 기억에 의존함을 밝혔다.

한편 실무 통역 유형으로서의 문장구역은 상당한 인지노력 간의 조율을 요한다. 즉, 인지에 많은 부담을 가하는 독해라는 작업 중에 신속하게 텍스트를 분석하고, TL의 표현을 떠올리기 위해 장단기 기억을 활성화시키며, 시선을 계획적으로 조절하여 TL 어순에 맞는 정확한 발화를 구성하는 작업인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선 이해 및 분석의 측면에서 문장구역자는 문서 유형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어휘를 보유하고 텍스트를 신속하게 읽고 요점을 파악해야 하며(Erickson, et al., 2006: 2), 의미 단위를 중요도에 따라 서열 매김을 해야 한다(캘리포니아주 법원, 2001: 2). 이때 구역자는 순차통역의 노트테이킹에 상응하는 모종의 표기 기법을 구사하여 발화를 준비한다. 이렇게 분석된 ST에 그 다음으로 활자 텍스트에 부재한 서술의 리듬감을 창출하고(양창수, 2007: 188), 단절 없이 정상적인 연결 속도로 해석해야 하며(조재영, 1990: 1), 언어간섭과 언어구조적 차이를 극복하여 TL 기준으로 수용가능한(acceptable) 발화를 산출해야 한다. 문장구역에서 ‘조율’의 인지노력이 배가되는 것은 독해라는 정적 행위로부터 통역을 위한 발화를 산출하는 능동적 인지 전환의 기제 때문이다. 문장구역을 번역과 대별하는 시간 압박 또한 매끄러운 조율과 표현을 한층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즉, 문장구역에서는 “(언어의) 이해, 전환, 생산 간의 시차가 짧고 이 같은 압축적 정보 처리는 도착어의 생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Shreve, et al., 2011: 93).

2.2. 시각적 언어간섭

문장구역에 관한 다수의 선행 연구는 독해에 수반되는 ST의 가시성(可視性)을 두고 문장구역의 시각적 언어간섭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한다(Weber, 1990; Martin, 1993; Gile, 1995; 박중철, 2000; Machniewski, 2003; Agrifoglio, 2004; 강지혜, 2004; 정혜연, 2007/2008; Lamerger-Felber, et al., 2008; Shreve, et al., 2011). 언어간섭이란 하나의 언어체계가 다른 언어체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일컫는 개념으로, 문장구역은 사용 언어 간의 부정적 전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상황을 설정하는 행위로 규정된다(Collados Aís, et al., 2001: 137). 언어학의 정의에 따르면, 언어간섭이란 언어 간 접촉으로 인해 이중언어 구사자들의 발화가 어느 쪽이든 한쪽 언어의 규범에서 이탈한 것을 뜻한다(Weinreich, 1953: 1). 통번역학에서는 간섭에 대해 “ST의 특성이 TT에 투영되어 빠롤(parole)과 관련된 TT의 규범이 위반되는 것”(Lamberger-Felber, et al., 2008: 217)이란 정의가 존재하며, 특별히 문장구역의 시각적 간섭은 “문장구역을 하는 중 ST의 상존(常存)으로 유발되는 헤패”(Shreve et al., 2011: 104)으로 정의된다. 언어학의 간섭이 대개 외국어 학습에 모국어 가하는 간섭 혹은 부정적 전이를 일컫는데 반해, 통번역의 언어적 접촉의 영향은 두 언어 쌍방 간에 이루어지므로 “(언어) 전환 시 외국어가 모국어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외국어의 언어 구조, 음성학적 특성, 어휘 또한 모국어에 침범한다”(Machniewski, 2003: 265).

청취와 독해를 비교한 질적 연구에 따르면(Walker, 1976; Kintsch, et al., 1977; Hildyard, et al., 1978:1982; Maeng, 2006: 475 재인용), 독자에 비해 청자는 하향식 처리(top-down process)에 더 크게 의존하여 독자 대비 내용의 정확한 회고율은 떨어지지만 아이디어와 핵심 추론에 있어서는 더 강점을 보인다. 즉, 독해에서는 의미 구성이 문자해독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상향식 처리(bottom-up process)가 우세하며, 그 결과 자료에 대한 지향성이 강하고 배경 지식보다는 입력되는 글이 우선시된다. 제2언어에 대한 학습자들의 어휘의 인식은 청취보다는 독해와 관련성이 크다는 점(Reves, et al., 1988) 또한 문장구역의 SL이 가하는 시각적 간섭 현상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질(1995: 184)은 “통역에서는 SL의 음성이 통역사의 기억에서 곧 소멸되므로 어휘나 구조가 아닌 의미적 재구성이 가능해지는 반면, 문장구역에서는 단어와 언어의 구조가 수행자의 눈앞

에 계속 존재하므로 SL과 TL 간의 간섭의 위험이 극심해진다”고 지적한다. 통역이 문장구역보다 더 깊은 정보처리를 도출한다는 비에지(Viezzi, 1989)의 실험 연구 결과 역시, 문장구역에서는 언어 간섭으로 인해 산출이 통역보다 언어적 완성도 측면에서 미흡할 것이라는 유추를 가능케 한다.

그렇다면 상기한 SL의 언어간섭이 문장구역의 TL에서 표출되는 양상은 무엇일까. 강지혜(2004: 120)는 음성을 청취하는 통역에 비해 문장구역 시 ‘직역’의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한다. 데 흐로트(De Groot, 2005)는 번역에서는 원문의 가시성으로 인해 통역에 비해 ‘축자역 반사작용’(transcoding reflex)에 따라 직역이 많이 유발됨을 보고하는데, 문장구역의 시간 압박이 번역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축자역에 대한 유혹은 문장구역에서 더 강할 수밖에 없다. 문장구역에 관한 실험연구 데이터는 언어간섭 표출 양상이 직역의 충위를 뛰어넘어 보다 폭넓게 존재함을 밝혔다. 아그리포글리오(2004)와 히메네스 이바스(2008)의 연구는 문장구역을 통해 산출된 TL 오류의 특징을 분석하여 문장구역에 관여하는 언어간섭의 표출 양상을 도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그리포글리오(2004)는 모국어가 서반아어인 통역사를 대상으로 영어에서 서어로의 문장구역, 순차통역, 동시통역을 비교하는 실험 연구를 실시하였다. 오류 항목⁶⁾을 의미와 표현으로 양분하여 분석한 결과, 문장구역에서는 통사, 문체, 어휘 및 문법 등의 표현오류가 가장 두드러졌다. 히메네스 이바스(2008)는 PACTE 연구팀⁷⁾의 번역능력모델을 근간으로 학부 통번역 전공생의 영-서 문장구역과 번역의 오류를 비교하였는데, 번역에 비해 문장구역에서 의미가 통하지 않는 ‘non-sens’ 오류가 빈번하고, ‘심리/생리적 요소’(psycho-physiological components)⁸⁾가 더 많이 관여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문장구역 학습자의 발화에서 발생하는 비유창성을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 슈리브 외(Shreve, et al., 2011)는 번역 전공 석박사생을 대상으로 문장구역과 번역을 수행토록 하여, 사전 조작된 통사적 난이도가 언어간섭 및 해석의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발화의 비유창성과 안구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문장구역에서 비유음 휴지(filled pause)의 발생 빈도가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비유창성은 어휘 및 통사적 전환의 어려움과 언어간섭 및 해석 전략의 모색에 기인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상을 토대로 문장구역 시에는 오역보다는 도착어의 표현 충위에서 직역, 비문, 비유창성 등의 부자연스러운 발화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는 결국 문장구역의 TL은 수용성(acceptability)이 저하되기 십상이라는 잠정적 결론을 가능케 한다.

3. 연구방법 및 데이터 분석

3.1 연구 문제

통역으로서의 문장구역은 통역 상황과 방식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삼파이우는 히메네스 이바스(Jiménez Ivars, 1999: 188, 301)가 사전준비의 여부와 관여하는 통역의 모드에 따라 분류한 실무 문장구역의 다섯 가지 유형을 소개한다. 즉, 1) ST에 대한 사전조회의 기회가 일절 없이 텍스트를 받는 즉시 시행되는 ‘생 문장구역’(STR⁹ proper), 2) ST를 받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짧막하게 주어진 후 시행되는 ‘사전 준비 후의 문장구역’(prepared STR), 3) 텍스트의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 요약 식으로 통역하거나 역으로 설명서의 성격을 띠는 짧은 텍스트를 해설하듯 풀어서 통역하는 ‘순차적 문장구역’(consecutive STR), 4) 연사가 텍스트를 낭독한 직후 텍스트를 기반으로 수행되는 ‘순차통역의 문장구역’(STR in consecutive interpretation), 5) 연사가 낭독하는 텍스트의 원고로 통역 부스에서 수행되는 ‘동시통역의 문장구역’(STR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with text)이다.

본 연구는, 상기한 유형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ST를 짧은 시간 동안 검토한 후 연사의 낭독 없이 시행되는 영-한 문장구역에서 학습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수업 관찰, 수행 평가, 면담과 학습자 저널을 토대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데이터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삼각검증기법(triangulation)의 일환으로 1) 수업 녹음 파일, 2) 오류 분석, 3) 수업일지, 3) 개별 면담기록, 4) 학생들의 자가 품질평가 및 저널이 수집되었다.

3.2 조사집단 및 절차

본 연구는 영-한 문장구역 수행 시 학습자가 느끼는 어려움 및 그에 따른 TL의 표현 양상을 고찰할 목적으로, 2011학년 1학기에 연구자가 강의한 [영-한 순차통역 I]을 수강하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1학년생 4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학생 4인 모두 A 언어가 한국어이며, 이들은 석사 과정 입학 전 사설 학원에서 문장구역을 직독직해 식 학습법의 하나로 한시적으로 접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해당 학기

에 문장구역 수업은 총 5주간 진행되었으며, 이 중 첫 두 주는 연구자가 문장구역 방법론을 소개하고 3주차부터 본격적인 실습수업에 돌입하였다. 총 3주의 실습수업 중 2주는 수업 중에 선정된 텍스트를 학생들이 문장 별로 교대로 실습하였고, 마지막 주에는 시험 형식으로 연설문 텍스트 전문을 학생마다 개별적으로 수행하였다.

3.3 1~4주 실습수업: 문장 단위 교대 연습

실습수업에 앞서 연구자는 첫 2회의 수업 중, 사전처리를 통한 문장 분절과 발화 순서에 대한 숫자 표기, 언어간섭의 위험과 재구성, 전향식 발화 등 선행 연구가 소개하는 문장 분석 및 발화를 위한 기본 기법과 유의사항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3-4주차 실습 기간에 사용된 텍스트는 미국의 초대 U. S. Global AIDS Coordinator가 AIDS를 주제로 한 연설이다(부록 1 참고). 한편 연구자는 수업 도중 각 학생의 수행에 대한 일지를 작성하였는데, 일례로 실습 4주차의 수업일지는 [표 2]과 같다.

[표 2. 교사의 수업일지]

날 짜	학 생	기록 내용
4/7	A	This includes...를 “여기에는---이 포함됩니다”로 해석하였는데 바로 직전의 문장 완료 표현을 기억하지 못해 연결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영어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모방한 해석이 한국어적으로 썩 자연스럽지 않다. campaign, compassion 등의 단어에 대해 적절한 대응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군말/필러가 잦다.
	B	keep A from B라는 커다란 틀의 문장구조를 통역에서 그대로 살려서 “~~은~~는 것을 힘들게 합니다”로 해석한다. 또한 백트래킹의 경향이 보인다. 표현과 processing 측면에서는 정확하게 간결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돋보인다.
	C	그밖의(other)...맞서(against)...성공적으로 이겨낸(successful fight)에서 드러나듯, 단어, 전치사 하나 하나를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D	몇몇 단어(even, serious)가 해석에서 누락되어 뉘앙스가 약간 살지 못했다는 점 이외에, It is crucial that을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하여 문장 이면의 당위성보다는 사전적 의미를 사용해 해석했다. detail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직역으로 인한 오역의 위험이 발견된다(earlier this year를 올해 초로 해석하는 점.) 포즈의 발생이 빈번한 편이다.

상기한 대로, TL 대응어로의 적절한 표현 모색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서 표현의 순발력과 간결성이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학생 등, 각자의 수행에서 개인차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실습의 마지막 주까지 교실 실습 중 연구자가 발견한 학생들 수행의 가장 크고도 공통적인 난관은 사전적(辭典的) 해석, 즉 일대일 대응 식의 직역으로 인한 TL 표현의 부자연스러움이었다. 학생들의 직역의 대상은 복수형 어미로부터 단어, 전치사 등의 어휘 차원뿐만 아니라 문장 구성의 틀, 즉 통사 구조로까지 확장되는 모습이 발견되었고 전반적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일대일 대응으로 빠짐없이 해석에 반영하여 장황하고 다소 부자연스러운 한국어를 구사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를 통해 선행 연구가 경고하는 문장구역의 시각적 간섭과 그에 따른 직역의 위험성의 실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역 이외에도, 역시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비유창성 표지(disfluency marker), 즉 백트래킹과 필러, 휴지 등도 상당 부분 발견되었다. 교실 수업에서 드러난 상기한 현상의 실례는 아래와 같다.

예-1. 사전(辭典)적 해석과 일대일 대응

ST: We now possess proven methods for combating HIV/AIDS, including effective prevention and behavior-change strategies.

TT: 우리는 이제 에이즈 퇴치에 있어 검증된 방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효과적인 방지책과 행동에 있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이 포함됩니다.

예-2. 휴지(pause), 군말(filler), 백트래킹(backtracking)

ST: Fear, stigma, and discrimination keep people from getting testing and knowing their status.

TT: 두려움과 편견과 차별...어...에이즈에 대한 두려움, 편견, 차별은 사람들로 하여금...사람들이...에이즈 검사를 하고, 아, 에이즈검사를 받고 그...그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힘들게 합니다.

학생들은 수업 실습 중 녹음한 자신의 문장구역에 대해, 과제의 일환으로 데이터를 자가 평가한 후 이에 대한 저널(journal)을 작성하였는데 저널을 통해 드러난 학생들의 문제 인식은 [표 3]와 같다.

[표 3. 학습자의 저널]

학생	날짜	저널내용
A	3/31	문장을 어떻게 끊는 것이 맞는지 솔직히 읽으면서 빠르게 판단할 수가 없었다. 일부 단어는 뜻도 정확히 몰랐다. 원문 자체가 파악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사전으로 끊은 부분까지 문장을 완성시키는 작업을 동시에 하려고 하니 많이 어려웠다. 일반 대중소설로 단어도 찾지 않고 구문도 파악하지 않은 채 스토리만 따라가는 식으로 영어공부를 했기 때문에 원문 파악력을 갖추지 못한 것 같다. 문장을 보는 바로 그 순간에 적절한 한국어로 생각해내는 일도 많이 어렵다.
	4/7	단어의 해석이 떠오르지 않아 돌아간다고 한 것이 오히려 문장을 어색하게 만들어버렸다. 영어의 원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큰 문제다. 내 한국어 수준이 많이 낮음을 다시 한번 느낀다. 문장구역 수업을 통해 빠른 원문 파악과 한국어 표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스테디를 하고 공부를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B	3/31	읽은 후 즉시 통역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급히 시작하다가 주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백트래킹을 하게 되었다. 돌이켜 보니, 문장구역을 한 문장의 'we'는 일반주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 자체가 불필요했다. 'we know'라는 표현에 지나치게 얽매어 '~을 알고 있습니다'로 풀었는데, 사실 더 간결한 다른 표현으로 끝냈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중요하지 않은 세세한 부분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지 말고,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연습해야겠다.
	4/7	주어 처리와 관련해 확신이 서지 않아 거꾸로 돌아가다 보니 백트래킹이 발생했다.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한국어 어감을 생각하며 구역하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다. 빨리 문장을 말하려다 보니 숙어로 외워진 형태가 나온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더 생각하고 품사를 바꿔보려는 노력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대로 통역하다 보니 무척 어색해졌다.
C	3/31	영어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꼭 한국어에서도 한 문장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때로는 서술어를 관형어로 처리해 다음 정보로 빠르게 넘어가는 것이 깔끔하고 이해도 쉬울 수 있을 것이다. 영어의 형태(form)를 따라서 통역을 하다 보면 부자연스러운 우리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4/7	여전히 영어의 형태를 따라, 또는 영어 단어를 봤을 때 1차적으로 떠오르는 뜻에 따라 문장구역을 하는 경우가 잦다. 확실히 번역보다 시간에 쫓기며 순발력 있게 말을 만들어내야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런 해석이 나오는 듯하다. 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D	3/31	전반적으로 문장구역 시 정해진 시간 안에 다양한 작업을 한꺼번에 하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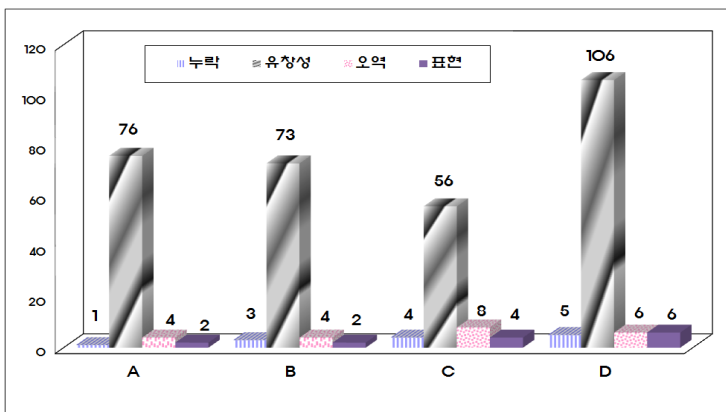
		다 보니 여러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 같다. 첫째, 짧은 시간 안에 먼저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문장이 긴 경우 수식 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원문과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다. 둘째, 영어에 해당하는 한국어를 순간적으로 떠올리기가 어려웠다. 셋째, 꼭 포함해야 될 부분과 굳이 해석하지 않더라도 문맥상 또는 한국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를 순간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넷째, 문장을 통역하기 위해 나누기 역시 쉽지 않았다.
	4/7	문장구역을 스터디를 통해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구역 중간에 휴지(pause)가 발행하였고 번역투가 눈에 띈다. 개인적으로 문장구역에서 가장 힘든 점은 시간제한이다. 백트래킹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처음 시작할 때 또는 구역 중간에 휴지가 발생하고, 휴지를 없애려고 하니 처음 머리에 떠오른 말을 하게 되고 결국 주술 호응이 되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구역을 하게 된다.

정리하면, 학생들은 저널에서 전반적으로 1) ST 분석에 있어 어휘와 문장 구조의 파악 및 적절한 분절, 2) 한국어 표현적 측면에서 적절한 TL 도출, 번역투와 레지스터(register) 및 간결성, 3) 유창성의 측면에서 휴지(pause)와 백트래킹(backtracking)의 발생에 대해 어려움을 표했으며, 이 모든 작업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문장구역의 시간 압박의 부담을 호소하였다.

3.4 5주차 실습수업: 연설문 개별 수행

실습 첫 2주 동안은 한두 문장 단위로 발표자의 순번이 바뀌어 텍스트 전체를 적정 속도로 연결하는 능력 등을 관찰할 수 없던 관계로, 학습자의 문장구역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그림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수행을 보다 심도 있게 관찰하고자 문장구역 마지막, 즉 5주차 수업에서는 짧은 연설문 텍스트(부록 2. 참고)를 선정하여 수강자마다 연구자 앞에서 개별적으로 구역하도록 하였다. 사용된 텍스트는 제3차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개막식 연설이었으며, 연구자는 청중 앞에서 통역하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구역해줄 것을 학생들에게 요청하였다. 연설 제목과 주제, 고유명사가 수행 직전에 제시되었고, 연설문 텍스트를 검토하고 사전을 조회하는 등의 준비 시간이 총 5분 부여되었다. 수행된 문장구역은 음성파일로 녹음되었으며, 연구자는 학생 4인에 대한 통역 품질 평가를 1) 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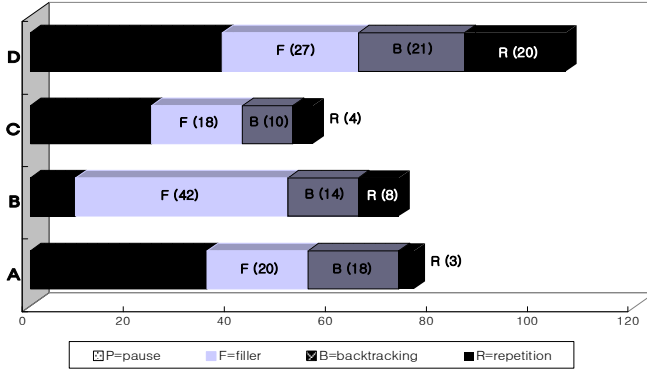
2) 오역, 3) 표현(직역, 비문법성), 4) 유창성(휴지, 반복¹⁰), 백트래킹, 주저어)의 항목에 따라 실시하였다. 항목 별 오류 빈도에 대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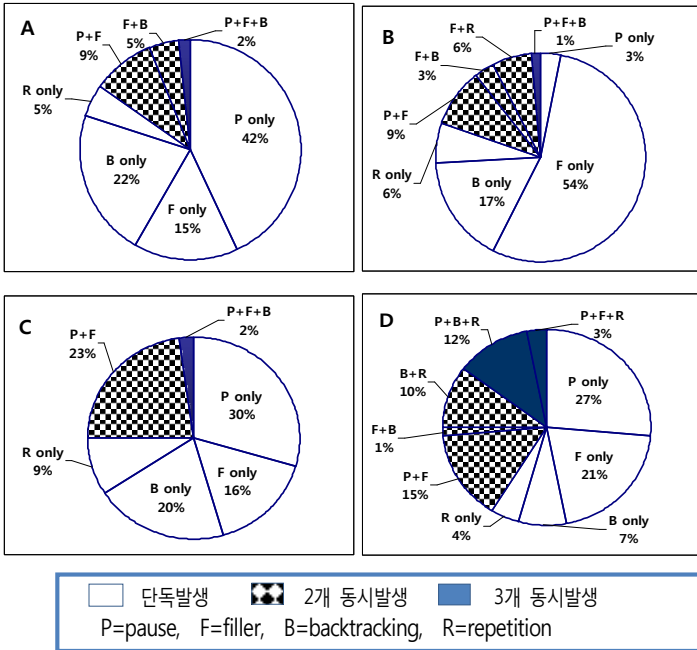
[그림 1. 내용설명]

그림에서 드러나듯, 누락, 오역, 표현, 유창성 오류의 발생 횟수를 비교한 결과, 학습자 4인의 데이터에서는 공통적으로 발생 빈도가 가장 낮은 항목이 누락(omission)과 표현이었으며 그 다음이 오역이었다. 이처럼 이전의 실습수업에서 두드러졌던 직역의 발생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졌는데, 드러난 직역의 양상으로는 복수형 어미(human rights: ‘인권들’), 영어 단어 그대로 발음(gap: ‘갭’), 맥락이 배제된 일대일 대응(wild liberalisation: ‘과격한 자유주의’) 등이 있다.

한편 ST의 총 문장수(16개)에 대비하여, TL의 문장수가 21-25개 사이의 분포를 보임으로써 학생들이 분절 전략을 일정 부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오역의 경우 생소한 어휘(‘justifiability’, ‘concretize’)와 숫자 전환에 집중되었다. 이에 반해, 휴지(pause), 주저어(hesitation filler), 백트래킹(backtracking), 중복(redundancy)에 해당하는 유창성 오류의 발생 빈도는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창성 항목에 대한 학생 별 오류 분포 및 항목 별 단독/동시 발생 비율은 각각 [그림 2, 3]과 같다.



[그림 2. 학생별 유창성 오류 분포]



[그림 3. 유창성 오류 항목의 단독 및 동시 발생 비율]

[그림 3]에서 보듯 유창성 오류 항목이 최소 2개 이상 동시 발생한 경우가 전체 발생 비율 대비, 적에는 20%에서 많게는 40%를 상회하였다. 학습자의 저널을 통해 드러난 유창성 원인의 오류는 [표 4]과 같이 정리되었다.

[표 4. 유창성 오류 원인에 관한 학습자의 저널]

학생	오류발생 원인
A	• pause: 문장구조 파악의 어려움 + 한국어로 어떻게 옮겨야할지 고민하다가 • backtracking: 전반적으로 첫 부분을 눈으로 읽고 나서 바로 시작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 앞부분을 처리하고 다음 부분을 읽어보니 앞부분을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 경우가 대부분
B	• filler와 pause가 동시에: 표현이 한국어로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 • filler: 생각나지 않는 그 단어가 자꾸 그 뒤에 등장하여 심리적 부담 • pause: 한국어에서 자주 볼 수 없는 사물 주어가 등장하여 문장 구조를 TL로 형성하는 것이 힘들었음 • backtracking: 주술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C	• pause와 filler 1. 통역 전략을 순발력 있게 수립하는 데 애를 먹는 경우(즉, 문장을 어디서 끊어서 해석을 어디서 출발할지 등에 대한 고민) 2. 단어의 의미나 대명사가 가리키는 바가 잘 파악되지 않을 경우 3. 단어와 문장의 의미 파악이 됐어도 적절한 한국어가 떠오르지 않는 경우 4. 숫자의 변환이 빨리 되지 않을 경우 • backtracking이 발생하는 경우 1. 특정 단어에 대한 수식어구를 차후에 발견하게 됐을 때 2. 문장에서 말을 이어나가는 데 부적절한 조사를 썼을 때
D	• 주어진 시간에 못 읽은 부분을 읽고 이해하려 하면서 긴 pause와 filler 발생 • 원문에 해당하는 적절한 한국어 표현이 생각나지 않아 pause와 filler 발생 • 주술 호응이 적절치 않음을 도중에 발견하게 되어 backtracking과 repetition 발생 • 숫자나 원문과 관련된 분야에서 사용하는 표현과 용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pause 발생

종합하면, 유창성 오류 중 휴지와 주저어는 시간 압박에 따른 SL 이해 및 TL 표현 도출과 연관성이 높으며 백트래킹은 SL에 대한 부적절한 분절, 그리고 주술 호응을 비롯하여 TL로의 문장 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문장구역 직후 학생들의 준비 작업 및 수행의 어려움에 대해 실시한 구조화된 면담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수행 직후 면담]

면담 질문		
• Q1) 5분간의 준비 시간에 무슨 작업을 중점적으로 했는가? • Q2) 본 텍스트의 구역에서 어떤 점이 어려웠는가? • Q3) 본인이 연마해야 할 기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학생	질문 항목	답변
A	Q1.	의미를 파악하고 단어에 대한 해석을 기재하였다.
	Q2.	마지막 단락까지 다 못 읽어서 처음 보고 해야 하는 부분에서 당황스러웠다. 우리말 표현이 힘들었다. 막상 시작하다 보니 뒷부분을 먼저 말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표현이 어색해졌다. 즉, 처음 눈에 들어온 단어부터 해석을 시작하다 보니 결국 우리말로의 연결이 어려워졌다.
	Q3.	한국어 발표력 부분. 즉 청중을 상정하여 말투, 목소리, 표현력 모두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역시 영어 파악이 더 중요한 문제다. 이는 부분에서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의미를 모르면 당황스럽다. 독해 능력이 가장 우선적으로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B	Q1.	한국어 해석을 기재하고 문장에 사선을 표기하였다.
	Q2.	읽는 동시에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 문장이 길어지면 어렵고 속도도 늦어진다. 주어를 하나로 잡았는데 콤마나 수식 그 다음에 나오면 뒤와 연결이 어렵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문장을 끊게 되고 당황의 연속이다.
	Q3.	특히 긴 문장에서 대해서, 문장이 어디서 끊기든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표현상의 문제가 많다. 그런데 적절한 표현이 바로 안 떠오르면 짐작이 커져서 휴지가 길어지고 못 넘어가겠다.
C	Q1.	문장의 의미와 구조를 파악하고 사선을 표기하였다.
	Q2.	특정 단어들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어려웠다.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면 와 닿지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해서 적절한 한국어 표현을 찾는 것이 힘들었다. (justifiability, concretize 등)
	Q3.	ST의 이해에 대한 부분이다. 오늘 같은 경우는 문장구조 보다는 어휘가 힘들었다. 단어의 뜻이나 문장에서의 쓰임이 어렵다기 보다는 처음 떠올린 한국어가 아닌 문맥에 맞는 한국어를 떠올리는 의역하는 순발력이 필요하다.
D	Q1.	머릿속으로 한번 통역을 해보고 모르는 단어를 사전에서 조회했다. 중간에 끝까지 읽을 시간이 모자라서 말하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 사전과 숫자를 표기했고, 앞문장의 주어가 뒤에 대명사로 나오면 무엇을 받는지를 표시하기 위해 밑줄을 긋고 화살표를 그렸다.

Q2.	시간 제약 때문에 힘들다. 사전에 읽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휴지와 백트래킹이 증가하며, 내게는 그 중 휴지가 특히 문제다. 백트래킹을 안 하려고 다짐을 하다 보니 읽다가 대명사가 등장할 때 무엇을 받는지 파악이 안 되면 이상한 말을 짓게 된다.
Q3.	표현을 즉각적으로 떠올려야 하므로, 한국어 표현을 고민할 시간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

4.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예비조사를 통해 다음의 네 가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영-한 문장구역의 오류의 양상 및 원인에 있어 학습자간 공통점과 개별성이 확인되었다. 우선 시간 압박이라는 수행 환경에 기인하여 문장구역 시 학생들은 SL의 분석 및 이해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적절한 TL 표현이 즉시 떠오르지 않음으로 오역이 발생하는 등, 통역 수행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공유하였다. 한편 분절 전략의 실패 등으로 백트래킹이 발생하는 사례에서부터 TL 표현 층위에서 직역투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 학생들이 느끼는 수행 상의 어려움에는 유형과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둘째, 문장 단위 실습과 전체 텍스트 실습에서 결과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전자의 경우 직역의 양상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5분의 준비 시간 후 수행된 텍스트 전반에 대한 구역에서는 유창성이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났다. 이는 텍스트 전체의 구역에서 짧은 사전 준비 시간이 직역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한 대신, 문장을 시간 압박 하에서 단절 없이 연결해야 하는 통역의 부담으로 인해 비유창성이 대거 발생한 것으로 원인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에도 텍스트의 유형과 그에 따른 내용, 어휘 및 문장구조적 측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문장구역의 전략으로 전향식 발화 기법만을 고수할 시, 이는 학습자의 수행에 있어 오히려 문제의 유발점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전향식 발화 시 분절된 의미 단위 간의 유기적인 연결이 학습자의 입장에서 용이치 않았으며, 이로 인해 백트래킹 혹은 주술 호응의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한편 학습자들의 텍스트 준비 전략은 주로 문장 분절 및 단어의 해석 기재로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문장구역에서 텍스트의 상시적 가시 상태, 즉 이미 읽은 부분으로 시선이

자유롭게 회귀할 수 있다는 점이 문장구역의 누락 발생횟수를 줄이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지만, 실제적 수행에 있어서는 단어의 경중을 판단하여 시선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노력에 해방을 가하여 반복과 백트래킹 등의 비유창성에 기여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본 예비조사의 결과를 전제로 한 교수법적 제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장구역 수행을 위한 기초 훈련 단계에서 숫자 및 어휘에 대해 대응어를 즉각적으로 도출하는 연습이 요구된다. 이는 스피드 퀴즈 등의 형식을 띌 수 있으며, 학습자가 보다 폭넓은 어휘를 습득하고 도출하도록 특정 SL 어휘에 대해 사전적, 맥락적 해석 뿐 아니라 유의어 및 동의어 등의 유사 의미군 어휘를 최대한 다양하게 떠올리는 연습이 유용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식적인 말하기 능력의 함양차원에서 TL의 어역을 조절하는 연습을 설계하여 적용할 수 있다.

둘째, ST의 신속한 독해 및 이해능력이 훈련되도록 읽은 즉시 핵심 메시지를 요약 및 설명하는 연습이 가능하다. 구역을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교수자가 텍스트 선정 시 문어와 구어의 특성을 다양하게 접하도록 하여 문어 텍스트를 구어화하는 문장구역 고유의 모드 전환에 숙달되도록 한다.

셋째, 패러프레이즈 연습을 언어내적(interlingual)으로 시행하여 학습자 문장구역의 TL 표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SL와 TL 중 어느 층위에서 유발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사전 점검하고 원문의 표현에 집착하지 않고 바꿔 말하는 훈련을 시행한다.

넷째, 문장의 호응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도록 문장의 주부를 제시한 후 미완성된 술부를 학습자가 호응에 맞도록 완성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또한 분절된 문장 단위 간의 유기적 연결을 위해 연결어 및 접속사에 대한 연습을 클로즈 테스트(cloze test) 등의 형식을 빌려 별도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직역투 및 사전적 해석을 극복하기 위해 직역의 정도가 심한 문장을 TL로 의도적으로 제시한 후, 이를 최대한 간결한 의미 중심의 표현으로 바꿔 말하는 연습을 하여 학습자가 도착어의 규율과 수용성에 대해 인지하도록 한다. 또한 직역의 습관 하에서는 TL이 장황해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해석을 최대한 간결하게 하는 수행의 원칙을 제시한다.

여섯째, 분절을 위한 사전 굿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전 준비 단계에서 보다 다양한 표기 기법을 구사하도록 하여 실제 수행에서 시선 및 어순의 조절 차원에서

도움을 받도록 한다. 가령 순차통역의 노트테이킹의 기법과 유사하게 괄호, 화살표, 수학적 부호 등을 보다 폭넓게 활용하고 문장구역에 사용가능한 기능적 기호를 수업 중 논의를 통해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전향식 및 비전향식 발화라는 문장구역 수행의 방법을 총체적으로 제시하여 학습자가 ST의 문장 유형 및 구상하는 도착어 형태에 적합한 전략을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선의 전진, 즉 전향식 문장구역은 SL와 TL의 언어구조적 차이가 클수록 적용이 어려워지므로 학습자는 전진과 회귀를 거듭하는 시선의 조절 능력을 가져야 한다. 또한 문장 분절 훈련 시, 학습자의 자의적 분절 뿐 아니라 교수자가 사전에 지정한 분절지점에 맞춰 의미단위를 처리하고 연결하는 능력을 함양시켜 즉흥적인 문장구역 상황에서 문장 처리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케 할 수 있다.

여덟째, 이상에서 제시된 연습 기법은 문장구역의 하위능력을 상당 부분 포괄하므로 교수자는 각 연습 별로 학습자의 수행을 관찰하여 문제 영역에 대한 개별 진단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각 학습자에 맞는 과제물 혹은 연습 방식을 조합하여 제안할 수 있겠다.

통역 및 번역과 대별되는 문장구역의 고유의 수행 능력은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의 수립을 요한다. 이에 따라 본 예비조사는 영-한 문장구역 학습의 어려움에 대한 원인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완결성 있는 텍스트의 문장구역 수행 시 군말(filler) 및 백트래킹과 휴지로 인한 단절 등의 비유창성이 최대 난제임이 드러났다. 통역 서비스 사용자들이 중요시하는 것이 TL 이해의 용이성과 통역사의 음성 등의 언어 전달적 요소이며 군말이나 유음 휴지(filled pause)에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일련의 설문 연구가 보여주듯(Ng, 1992; Moser, 1996; Kurz, 2001), 통역에 대한 사용자들의 기대는 TL의 유창성과 수용성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예비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장구역 학습자들의 비유창성과 직역 현상 등은 명백한 극복 대상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본 예비조사를 출발점으로, 학습 과정을 보다 장기적이고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상술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이때, 일회성 실험을 통해 일반화를 꾀하는 양적 연구보다는 학습자의 내성 데이터(introspective data)를 적극 활용하여 학습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는 질적 연구 혹은 질적, 양적 연구방법론을 결합한 보다 폭넓은 통합연구가 바람직하리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지혜(2004). 통역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곽중철(2000). 통역 101.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박문호(2008). 뇌, 생각의 출현. 서울: 휴머니스트.
- 신경선(2009). 대학 중국어 교육에서의 통역 수업 활용 방안. 중국언어연구. 30, 487-506.
- 안희영(1993). 문장구역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논문집. 4, 69-83.
- 양청수(2007). 통역교육연구: 이론과 실천. 손지봉, 김영민, 안희정 역. 서울: 한국문화사.
- 정혜연(2007). 연상작용을 통한 문장구역- 통역교육에의 시사점. 통번역학연구. 10(2), 105-126.
- 정혜연(2008). 통역학개론. 서울: 한국문화사.
- 조재영(1990). 전향식 영-한 문장구역. 한국외국어대학교 논문집. 23, 227-245.
- 한유희(2000). 독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문장구역 활용. 석사 학위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
- Collados A. & Sanchez(2001). 양방향 통역입문. 한원덕, 김상미 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Agrifoglio, M.(2004). Sight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constraints and failures. *Interpreting*. 6(1), 43-67.
- Barton, D.(1994). *Literacy: An introduction to the ecology of written language*, Oxford & Cambridge: Blackwell.
- De Groot, A.M.B.(2000). A complex-skill approach to the study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In Tirkkonen-Condit, S. & Jääskeläinen, R. (Eds.). *Tapping and mapping the processes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Outlooks on empirical research*.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53-68.
- Erickson A., Bonet J., Festinger N., Framer I., Macfarlane A.G.(2006). Modes of interpreting: simultaneous, consecutive

- and sight translation. *National Association of Judicial Interpreters and Translators(NAJIT) Position Paper*.
- Gorszczyńska, P.(2010). The Potential of Sight Translation to Optimize Written Translation: the Example of the English-Polish Language Pair. In Azadibougar, O. (Eds.) *Translation Effects: Selected Papers of the CETRA Research Seminar in Translation Studies 2009*. <http://www.kuleuven.be/cetra/papers/papers.html>
- Gile, D.(1995).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8th Ed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Hilyard, A. & Olsen, D.R.(1982). On the comprehension and memory of oral vs. written discourse. In Tannen, D. (Eds.). *Spoken and written discourse: Exploring orality and literacy. Advances in Discourse Processes* 9. Norwood, NJ: Albex. 19-24.
- Jiménez Ivars, M. A.(1999). *La Traducción a la vista. Un Análisis descriptivo*. Tesis Doctoral. Universitat Jaume I, Facultat de Ciències Humanes i Socials. Castelló de la Plana, Espanya.
- Jiménez Ivars, M.A.(2008). Sight translation and written transla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causes of problems, strategies and translation errors within the PACTE translation competence model. *Forum*. 6(2), 79-104.
- Kurz, I.(2001). Conference interpreting: Quality in the ears of the user. *Meta*, 46(2), 394-409.
- Lamberger-Felber, H & Schneider, J.(2008). Linguistic interference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with text: A case study. In Hansen, I.G., Chesterman, A., Gerzymisch-Arbogast, H. (Eds.). *Efforts and Models in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Research*.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214-236.
- Machniewski, M. (2003). The phenomenon of cryptic interference:

- Some remarks concerning the process of translation on the basis of an empirical study of sight translation. *SAP*, 39, 263-277.
- Maeng, U.(2006). Comparison of L2 listening and reading comprehension strategies: A case study of three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Curriculum & Evaluation*, 9(2), 471-500.
- Martin, A.(1993). Teaching sight translation to future interpreters. In Picken, C. (Eds.), *Translation – the vital link. Proceedings of the 13th World Congress of FIT Brighton*. London: Institute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 Moser, P.(1996). Expectations of users of conference interpretation. *Interpreting*, 1(2), 145-178.
- Nam, J.(2005). A comparative study of spoken and written language: An analysis on English samples. *The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34, 59-72.
- Ng, B. C.(1992). End users' subjective reaction to the performance of student interpreters. *The Interpreters' Newsletter, Special Issue 1*, 35-41.
- Pöchhacker, F.(2004). *Introducing interpreting studies*. Routledge.
- Reves, T., & Levin, A. (1988). The foreign language receptive skills: Same or different? *System*, 16, 327-366.
- Sampaio, G.R.L. (2007). Mastering sight translation skills. *Tradução & Comunicação*, 16, 63-69.
- Shreve, G. M., Lacruz, I., Angelone, E. (2011). Sight translation and speech disfluency: Performance analysis as a window to cognitive translation processes. In Alvstad, C., Hild, A., Tiselius, E. (Eds.) *Methods and Strategies of Process Research*.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93 - 120.
- Viezzi, M. (1989a). Information retention as a parameter for the

comparison of sight translation and simultaneous interpreting: an experimental study. *The Interpreters' Newsletter*, 2, 65-69.

Visintin, A. Z. & Campos, V. P. (2009). Sight translation as a cognitive tool in language learning. In *Foro de Estudios en Lenguas Internacional FEL 2009*. 611-618.

Weber, W. (1990). The importance of sight translation in an interpreter training program. In Bowen, D. & Bowen, M. (Eds.). *Interpreting: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44-52.

Weinreich, U. (1953) *Languages in contac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웹사이트〉

미국 국립법정통번역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Judiciary Interpreters & Translators, NAJIT), <http://www.najit.org>

전미의료통역사협회(National Council on Interpreting in Healthcare, NCIHC)(2009). Sight translation and written translation: A guideline for healthcare interpreters. The National Council on Interpreting in Health Care Working Paper, <http://www.ncihc.org/Resources/NCIHCWorkingPaperSeries>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2001). Exercises for sight translation.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Courts, <http://courts.michigan.gov/scao/services/access/SightExercises.pdf>

1) NCIHI Working Paper Series, 'Sight Translation and Written Translation - Guidelines for Healthcare Interpreters' (April, 2009)

2) 청각 신호는 '와우신경절 →연수 와우신경핵 →연수 상올리브핵 → 중뇌 하구 →시상 내측슬상체 → 1차 청각 피질'의 경로를 거치는 반면, 시각 신호는 '망막 신경절세포 → 중뇌 상구 →시상 외측슬상체 →1차 시각 피질'이라는 이동 경로를 따른다.

- 3) 각 과제에 요구되는 인지적 부담을 인지노력(effort)의 개념으로 설명한다(Gile 1995: 162).
- 4) 조정 즉 'coordination'은 청취(L), 발화(P), 기억(M)을 조율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뜻한다(Gile, 1995: 168).
- 5) 작업기억이란 이해, 학습, 추론 등 복합적인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인지체제이며, 스키마란 우리가 하나의 낱말이나 문장을 들을 때 머리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작은 그림 혹은 연합을 뜻한다(한유희 2000: 8-10).
- 6) 의미오류(meaning failure)에는 오역, 누락, 불완전한 문장이 세부 항목화 되었으며 표현 오류(expression failure)는 1) 통사와 문체(style)의 오류, 2) 잘못된 용어 선택과 연어(collocation) 및 모사(calque) 등의 어휘적 오류, 3) 문법적 오류로 분류되었다.
- 7) Process in the Acquisition of Translation Competence and Evaluation의 약자로, 스페인 정부의 지원 하에 바르셀로나 자치대학(Universitt Aut3noma de Barcelona)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연구팀이다.
- 8) PACTE 연구팀이 제안한 번역의 6가지 하위능력 중 하나로, 기억, 인지, 주의력, 창의력, 인내심, 비판능력 등 행동 및 인지와 관련된 요소를 일컫는다.
- 9) STR= sight translation
- 10) '휴지'는 2초 이상의 침묵, '반복'은 정정 시도 도중 발생하는 중복으로 정의되었다.

부 록

1. 실습수업 3-4주차 텍스트

Combating AIDS with Compassion and Resolve

by Randall L. Tobias, U.S. Global AIDS Coordinator

World AIDS Day is commemorated on December 1 each year to highlight successes and remaining challenges in the fight against HIV/AIDS. This yea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many successes to acknowledge. We now possess proven methods for combating HIV/AIDS, including effective prevention and behavior-change strategies, fighting stigma and discrimination, and partnering government with civil society. We know that leadership is essential, and that early and effective action can contain and even roll back epidemics and reduce the burdens of disease on families, communities, and nations. Witness the successful fight nations waged against various diseases earlier this year.

It is crucial that people, and their leaders, even in countries that have so far been lightly touched by the AIDS epidemic acknowledge the threat presented by this disease and take serious action to halt its spread. This includes the resolve to confront the issue squarely through public awareness campaigns, and the compassion to deal humanely with its victims. Stigma remains our greatest challenge in the fight against HIV/AIDS. Fear, stigma, and discrimination keep people from getting testing, from knowing their status, and discussing that information openly and honestly. People living with AIDS should not be treated with cruelty and discrimination, but instead with dignity and compass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aken action against the crisis of HIV/AIDS, with vital contributions from 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and other multilateral institutions. The U.S. has stepped up to the challenge of global HIV/AIDS with our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 As President Bush stated, "in the face of preventable death and suffering, we have a moral duty to act, and we are acting." This five-year, \$15 billion initiative is targeted to preventing 7 million new HIV infections, providing treatment medicines to 2 million HIV-positive individuals, and caring for 10 million people living with HIV/AIDS and children orphaned by the disease.

And yet enormous challenges remain. Five million people have been infected with HIV in the year since the last World AIDS Day. Three million more have died, leaving behind anguished loved ones, abandoned children, ravaged communities. Increasingly, AIDS has a woman's face: women now account for more than half of infections worldwide, and that proportion is growing. In claiming the lives of societies' most productive populations, HIV/AIDS threatens a basic principle of development—the principle that each generation do better than the one before it. HIV/AIDS has deepened poverty, reduced life expectancy, diverted state resources, and left a generation to grow up without the love, guidance and support of parents and teachers.

There is no doubt that HIV/AIDS represents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of our time. Its defeat will require constant and concerted commitment from all of us. In order to maximize the impact of our efforts, the U.S. is committed to working with governments, civil society groups, and multilateral organizations to achieve the goals of its plan. The U.S. cannot achieve these goals for prevention, care, and treatment on its own. Working together, these goals should be mere stepping stones to a world in which AIDS no longer has a strangle hold on our future.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2. 실습 5주차 텍스트

Third World Social Forum

by Shirin Ebadi, head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FIDH))

I feel very happy and honored to be here today, and to intervene at the opening session of the Third World Social Forum.

This Forum is a symbol of hope in this changing world, torn by conflicts, violence, inequalities and injustice. This Forum gathers thousands and thousands of people who, all over the world, believe that another world is possible, where globalisation would not be synonym of inequalities and wild liberalisation, people who believe that the human being should be at the center of globalisation.

Worldwide, 54 countries are poorer than they were in 1990. In 2002, nearly 1.2 billion people lived in extreme poverty, defined as an income of less than US\$1 per day. Asia bears the greatest number of people living in extreme poverty. Forty-two million people live with HIV/AIDS, and the number will surpass 100 million within a decade unless a massive response begins immediately.

Extreme poverty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since people are deprived from the rights to healthcare, education, food or housing. It also results in further human rights violations since, without resources, many rights become pure theory - rights to a fair trial,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right to free and fair election. I believe that this situation is not ineluctable: remedy lies in a greater respect for human rights.

By reforming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cluding the WTO, the IFIs or the UN Security Council, and making them more democratic, the gap between those who have and those who have not could be reduced. By

ensuring the justiciability, and consequently the effectiveness of economic and social rights, we can make them a reality for the majority of the planet.

By making all actors responsible fo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to which they contribute, including the transnational corporations, human rights can concretise much more widely. These issues are on the top of our agenda. The FIDH, to which I belong, will devote its next Congress to the issues of accountability, justiciability of rights and civil society participation. Those elements are prerequisites for the democratisation of globalisation.